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5, No. 134, pp.1-40
<https://doi.org/10.29212/mh.2025..134.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장창당(長槍幢)의 비금서당(緋衿誓幢)으로의 재편 및 '비금당(緋衿幢)'의 구성에 대한 짧은 고찰

윤태양 | 서강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목 차
1. 머리말
 2. 효소왕(孝昭王) 2년 장창당(長槍幢)의 비금서당(緋衿誓幢)으로의 재편 배경
 3. 비금서당·'비금당(緋衿幢)'의 신라 군사 조직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4. 맺음말

초 록 신라 9서당(九誓幢) 부대 가운데 하나인 비금서당(緋衿誓幢)은 효소왕(孝昭王) 2년(693) 장창당(長槍幢)으로부터 개편되어 성립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 군관(軍官)으로 비금당주(緋衿幢主)·비금감(緋衿監)이 전해진다. 이는 9서당 중 유일한 사례로 그 재편 시기도 신문왕(神文王) 대 다른 서당들의 설치로부터 최소 6년 늦어 연속성이 떨어지지만, 비금서당은 9서당의 하나로서만 이해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장창당의 비금서당으로의 재편이라는 사건을 효소왕 대 초기, 특히 693년 3월부터 5월까지 문제가 되었던 부례랑(夫禮郎) 사건 등과 관련된 사건으로 보아 특수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려 시도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661년 서당총관(誓幢總管)이었으며 신문

왕(神文王) 대 다른 서당들의 설치로부터 최소 6년 늦어 연속성이 떨어지지만, 비금서당은 9서당의 하나로서만 이해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장창당의 비금서당으로의 재편이라는 사건을 효소왕 대 초기, 특히 693년 3월부터 5월까지 문제가 되었던 부례랑(夫禮郎) 사건 등과 관련된 사건으로 보아 특수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려 시도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661년 서당총관(誓幢摠管)이었으며 신문왕 대부터 상대등(上大等)이었던 진복(眞福)이 694년까지 상대등 자리에 머물면서 정권의 비호를 받으며 장창당을 비금서당으로 재편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한편 비금서당의 금색(衿色)인 비색(緋色)이 신라 4색 공복(公服) 체계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하여 자금서당(紫衿誓幢)·녹금서당(綠衿誓幢) 등을 보조·보완한다는 명목으로 재편된 것으로 추측하고, 비금당주(緋衿幢主)가 각 주(州)에 배치되었으나 전방인 한산주(漢山州)에 비해 후방인 무진주(武珍州)에 더 많은 인원이 배치된 점 등을 고려하여 군사적 목적뿐만 아니라 행정 공백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경비·치안이라는 목적까지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한편 영마병(領馬兵) 비금감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마병(馬兵)’의 의미를 참고하여 중앙 비금서당 조직과 주(州)의 비금당 조직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면서 왕명(王命)을 전달하는 이로서 권위를 표상하였을 것으로 이해하였다.

주제어(Keywords) : 비금서당(緋衿誓幢), 비금당(緋衿幢), 장창당(長槍幢), 효소왕(孝昭王), 부례랑(夫禮郎) 사건

(원고투고일 : 2025. 1. 8. 심사완료일 : 2025. 2. 24. 게재확정일 : 2025. 3. 4.)

1. 머리말

7세기 후반 이후 신라 중앙군의 한 축을 이루었다고 여겨지는 이른바 9서당(九誓幢)은 583년 두어진 서당(誓幢)·625년 두어진 낭당(郎幢) 등 중고기(中古期)의 군사 조직에 그 뿌리를 두고 있지만, 중대(中代)의 672~693년 동안 이를 구성하는 6개 부대가 단계적으로 창설되고¹⁾ 서당·낭당·장창당(長槍幢)을 녹색서당(綠衿誓幢)(673?)²⁾·자금서당(紫衿誓幢)(677)·비금서당(緋衿誓幢)(693)으로 고치면서 그 조직이 완성되었다. 그 가운데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는 부대로, 그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재)편성된 비금서당은 본래 672년 창설된 장창당을 기원으로 하지만 693년 비금서당으로 개칭되면서 9서당 조직에 포함되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이 비금서당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여타의 서당 부대와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첫째, 비금서당 이전 마지막으로 서당 조직에 추가되었던 청금서당(靑衿誓幢)의 설치와 비금서당의 재편 사이에 6년의 시간적 차이가 있는 점이다. 이러한 연대 차이로 인해 특히 비금서당의 설치 계기를 보덕국(報德國)의 반란(684) 전후의 상황과 연결 지어 이해되는 황금서당(黃衿誓幢)·

1) 백금서당(白衿誓幢)(672, 백제 백성), 황금서당(黃衿誓幢)(683, 고구려 백성)·흑금서당(黑衿誓幢)(683, 말갈국 백성), 벽금서당(碧衿誓幢)·적금서당(赤衿誓幢)(686, 보덕성(報德城) 백성), 청금서당(靑衿誓幢)(687, 백제 잔민(殘民))이 차례로 창설되었다.

2) 녹색서당(綠衿誓幢)이 서당(誓幢) 부대의 하나로 개칭된 시기에 대해서는 660~668년 여전히 서당·낭당의 활동이 보이는 점에서 백금서당이 설치되는 672년 이후(未松保和, 『新羅幢停考』, 『新羅史의諸問題』, 東洋文庫, 1954, pp.352-353), 구체적으로는 『삼국사기』 직관지에 기록된 613년으로부터 1갑자 뒤로 간지(干支)가 일치하는 673년에 고쳐졌을 것이라는 추론(盧重國, 「신라 통일기 九誓幢의 성립과 그 성격」, 『韓國史論』 41·42 합집,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9, pp.163-167)이 제시되어 있다.

흑금서당(黑衿誓幢)·벽금서당(碧衿誓幢)·적금서당(赤衿誓幢) 등 과³⁾ 유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⁴⁾ 둘째, 비금서당의 구성이 기병 관련 군관은 결락·축소된 반면 보병 관련 군관의 비중이 높은 점 등 여타의 8개 서당과 차이가 있는 점이다.⁵⁾ 셋째, 녹금서당·자금서당 이후 백제·고구려·말갈·보덕성민 등 신라인으로 구성되지 않은 6개 부대가 만들어진 것과 달리, 16년 만에 신라인으로 구성된 부대가 서당 조직에 더해진 점이다.⁶⁾ 이 점에서 9서당을 구성한 목적으로 언급되는 ‘이국인(異國人)에 대한 포섭’이라는 명제로는⁷⁾ 장창당이 비금서당으로 재편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⁸⁾ 넷째, 홀로 금색(衿色)에 대한 명시적인 기록이 없어, 기록 계통의 차이를 짐작할 수 있는 점이다.⁹⁾ 이러한 점들은 비금서당이 본래부터 거시적 계획에 의해 9서당으로 편성되었거나 이전의 서당과 연속성을 갖고 구성된 것이 아니라,

3) 686년 벽금서당·적금서당은 보덕국의 해체 과정에서 두어졌다고 여겨지며(村上四男, 『新羅國と報德王安勝の小高句麗國』, 『朝鮮古代史研究』, 開明書院, 1978, p.261) 683년 안승(安勝)의 신라 왕경으로의 이주와 같은 해 황금서당(정선여, 『新羅 神文王代 報德國民의 반란』, 『역사와 담론』 66, 호서사학회, 2013, pp.56-59 참고)·흑금서당의 설치(박명호, 『진골귀족의 관료화와 보수체제 정비』, 『7세기 신라 정치사의 이해』, 경인문화사, 2016, p.154의 각주 70) 참고)도 이와 연계되어 이해된다.

4) 그 밖에 9서당 편성과 유관한 것으로 여겨지는(金義滿, 『新羅 神文王代の 政治狀況과 兵制』, 『新羅文化』 9,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92, p.87) 백금무당(白衿武幢)(675)·적금무당(赤衿武幢)(687)·황금무당(黃衿武幢)(689)의 정비 또한 신문왕의 재위 기간 내에 완료되었다(『삼국사기(三國史記)』 권 40, 잡지(雜誌) 제 9, 직관(武官) 하 무관(武官), 3무당(三武幢)조).

5) 井上秀雄, 『新羅兵制考』, 『新羅史基礎研究』, 東出版, 1974, p.185; 徐榮教, 『新羅長槍幢에 대한 新考察』, 『慶州史學』 17, 경주사학회, 1998, p.50.

6) 井上秀雄, 앞의 책, 1974, p.180.

7) 末松保和, 앞의 책, 1954, pp.357-358; 金哲垞, 『統一新羅 支配體制의 再整備』, 國史編纂委員會 編, 『한국사 3: 고대 - 민족의 통일』, 國史編纂委員會, 1978, p.57·60.

8) 이에 대해 末松保和는 단순히 ‘9’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았고(末松保和, 앞의 책, 1954, p.354), 井上秀雄도 지극히 이념적인 조치라고 하였다(井上秀雄, 앞의 책, 1974, p.180).

9) 末松保和, 앞의 책, 1954, p.354.

비금서당이 재편된 693년 전후의 상황을 반영하여 조직이 재구성되었음을 암시한다.

정치적인 의미에서도, 장창당이 비금서당으로 개편된 시기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다. 692년 7월 2일 신문왕(神文王)의 사망 이후 즉위한 효소왕의 통치 행위로 즉위 직후 피휘(避諱)에 따른 좌우이방부(左右理方府)의 개칭과¹⁰⁾ 692년 8월 새로운 중시(中侍) 원선(元宣)의 임명,¹¹⁾ 같은 해의 의학(醫學) 설치와¹²⁾ 함께 즉위 이후 상당히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 693년 장창당의 비금서당으로의 재편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694년 정월 효소왕이 신궁(神宮)에 친사(親祀)하고 새로운 상대등(上大等)으로 문영(文穎)을 임명한 것보다도¹³⁾ 빠르다. 말하자면 장창당의 비금서당으로의 재편은 효소왕 대 초기의 정국 운영 방향과도 밀접한 연관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무렵의 정치 상황을 재평가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특히 이 무렵의 정치적 상황을 고찰할 때, 같은 693년에 발생하였다고 하는 『삼국유사(三國遺事)』 백률사(栢栗寺)조의 이른바 부례랑(夫禮郎) 사건이 주목된다. 종래 부례랑 사건은 효소왕 초기의 불안한 왕권을 상징하는 사례로 언급되어 왔다.¹⁴⁾ 그러한 해석은 해당 사건에서 보이는 불안의 해소 방법이 상징적인 형태로 나타나, 신라 조정의 능동적인 조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비금서당의 재편 시기를

10) 『삼국사기』 권 8, 신라본기(新羅本紀) 8, 효소왕 원년(692) 즉위조.

11) 『삼국사기』 권 8, 신라본기 8, 효소왕 원년 8월조.

12) 『삼국사기』 권 39, 잡지 8, 직관 중, 의학(醫學)조.

13) 『삼국사기』 권 8, 신라본기 8, 효소왕 3년(694) 정월조.

14) 辛鐘遠, 「新羅五臺山事蹟과 聖德王의 卽位背景」, 崔永禧先生 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刊行委員會 編, 『崔永禧先生 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探究堂, 1987, pp.108-110; 金壽泰, 「孝昭王代 眞骨貴族의 動向」, 『新羅中代政治史研究』, 一潮閣, 1996, pp.36-39; 박해현, 「孝昭王代 貴族勢力과 王權」, 『신라 중대 정치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3, pp.67-68 등.

이 문제와 연관 지어 생각할 때, 693년 3월 발생한 부레랑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대책으로서 그 해 비금서당이 두어졌을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여겨진다. 그 점에서 장창당의 비금서당으로의 재편은 효소왕 초기의 왕권의 평가와 관련된 문제로, 더욱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비금서당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조직으로 비금당주(緋衿幢主)·비금감(緋衿監)이 보인다. 이들은 『삼국사기(三國史記)』 직관지(職官志) 무관(武官)조의 서술에 따르면 9주(州)의 각 주(州)마다 배정된 인원이 있었고, 비금당주의 수는 무진주(武珍州)의 8명부터 한산주(漢山州)의 2명까지 일정하지 않다. 기존 연구 가운데 이 비금당주 등이 속했을 ‘비금당(緋衿幢)’을 비금서당이 해체되고 생겨난 부대로 본 견해가 있고,¹⁵⁾ 또 비금서당의 전신인 장창당의 성격을 이어받아 장창을 무기로 하는 병종(兵種)의 부대로 설명하여 왔다.¹⁶⁾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장창은 기병에 대해 대응하는 무기로 이용되었다고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말갈(靺鞨)’ 기병과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최전방 지대인 한산주에 2명의 비금당주만 배치된 것은 후방 지역인 무진주에는 8명의 비금당주가 배치된 것은 어색하다. 따라서 비금당의 성격과 전국에 불균형하게 배치된 이유를 다시금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글은 본문을 Ⅱ장과 Ⅲ장으로 구성한다. Ⅱ장에서는 우선 693년이라는 시기에 장창당이 비금

15) 全德在, 「新羅 下代 鎭의 設置와 性格」, 『軍史』 3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97, pp.51-52; 「『삼국사기』의 기록을 통해 본 신라 왕경의 實相 - 문무왕대 이후 신라본기와 잡지, 열전에 전하는 기록을 중심으로 -」, 『大丘史學』 132, 대구사학회, 2020, p.37.

16) 井上秀雄, 앞의 책, 1974, p.185; 李仁哲, 「新羅 骨品體制社會의 兵制」, 『新羅政治制度史研究』, 一潮閣, 1993, p.354; 全德在, 앞의 논문, 1997, p.51; 徐榮教, 앞의 논문, 1998, p.50 등.

서당으로 재편된 이유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어서 Ⅲ장에서는 비금서당의 신라 군사 조직 내에서의 위치 및 그와 유관한 조직으로 추정되는 '비금당'의 성격에 대해 재론하고, 이를 통해 비금서당의 성격에 대해 보론을 덧붙일 것이다. 많은 부분을 추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논리 전개에 무리한 점도 많겠지만, 현재 필자가 판단할 수 있는 한에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고자 한다.

2. 효소왕(孝昭王) 2년 장창당(長槍幢)의 비금서당(緋衿誓幢)으로의 재편 배경

『삼국사기』 직관지 무관조에 따르면 비금서당은 장창당이라는 부대에 기원을 두었다. 이에 대해 그 조목의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A. 네번째는 비금서당이라고 한다. 문무왕 12년(672) 장창당을 처음 두었다. 효소왕 2년(693) 비금서당으로 고쳤다.¹⁷⁾

이상의 기록은 간결하지만, 비금서당이 갖는 일정한 특수성을 암시해 주는 요소가 보인다. 우선 그 재편 시기이다. 비금서당은 9서당의 소속 부대로서 중고기에 이미 두어진 녹금서당(←서당)·자금서당(←낭당) 이외의 7개 서당 가운데 유일하게 새로 두어지지 않았고 전신이 되는 부대를 갖고 있었다. 또 그 7개 서당 가운데 유일하게 신라인으로 구성된 부대였다.

17) 『삼국사기』 권 40, 잡지 9, 직관 하 무관, 9서당(九誓幢) 비금서당조.

다른 한편, 그 재편 시기는 그 이전에 마지막으로 두어진 서당 부대인 청금서당의 창설(687)으로부터 6년 떨어져 있기도 하다. 이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길다고까지는 할 수 없으나, 이 때문에 신문왕 대 연속적으로 두어진 6개 서당과는 설치(재편)된 왕대(王代)가 갈리며 황금서당·흑금서당·벽금서당·적금서당 등은 684년 보덕국의 반란과 관련되어 이해되는 것과 달리¹⁸⁾ 비금서당에 이 이유를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다. 또한 6개 서당이 두어진 시기와 장창당이 비금서당으로 재편된 시기 사이, 690년에 개지극당(皆知戟幢)·3변수당(三邊守幢) 등이 창설되었음을¹⁹⁾ 고려하면, 모종의 이유로 비금서당이 다른 부대와 연속적으로 창설될 수 없었다기보다는 애초에 서당 부대가 ‘9서당’을 계획하여 편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재편된 비금서당은 재편되어 이미 완성된 ‘8서당’에 더해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아울러 부대의 구성과 관련하여서도 비금서당이 갖는 특수성은 이전부터 언급되어 왔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특징은 금색이 명시되지 않은 점이다.²⁰⁾ 물론 다른 ‘모(某)금서당’의 명칭으로는 그 부대를 시각적으로 표지하는 금색 2종 가운데 1종이 사용된 점과 유관 군관으로 보이는 비금당주가 “착금(著衿)”하였다는 기사가 있는 점에서²¹⁾ ‘비금서당’이 비색(緋色)을 금색으로 사용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²²⁾ 그러나 9서당 부대 가운데 유일하게 금색 기록이 누락된 점은 분명한 차이점이기도 하다.

18) 벽금서당·적금서당에 대하여 村上四男, 앞의 책, 1978, p.261; 황금서당에 대하여 정선여, 앞의 논문, pp.56-59; 흑금서당에 대하여 박명호, 앞의 책, 2016, p.154의 각주 70) 참고.

19) 『삼국사기』 권 40, 잡지 9, 직관하 무관, 개지극당(皆知戟幢); 3변수당(三邊守幢)조.

20) 末松保和, 앞의 책, 1954, p.354.

21) 『삼국사기』 권 40, 잡지 9, 직관하 무관, 비금당주(緋衿幢主).

22) 辛兌鉉, 『新羅 職官 및 軍制의 研究』, 『慶熙大學校 論文集』 2, 경희대학교, 1959, p.66.

다른 한편 비금서당을 구성하는 군관으로는 영마병(領馬兵) 대대감(隊大監)·영기병(領騎兵) 화척(火尺)이 보이지 않는 반면, 영보병(領步兵) 대대감·화척은 4인·8인으로 다른 서당의 2인·4인의 배수이다. 그 밖에 보기당주(步騎幢主)·보기감(步騎監)·착금기당주(著衿騎幢主)·착금감(著衿監)·흑의장창말보당주(黑衣長槍末步幢主)의 인원 수 기록에서도 또한 다른 서당과 달리 빠졌으며, 영기병 소감(少監)(3인) 또한 다른 서당 부대 소감(6인)의 절반에 그친다. 그 반면 비금서당과 관련하여서 특이하게 나타나는 군관도 있는데, 직관지 무관조에서는 별개의 군호(軍號)로 비금당주·비금감이 보인다. 이를 비금서당과 관련이 있는 군관으로 보는 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직관적으로는 그럴 뿐만 아니라, 직관지에서는 비금서당을 포함한 ‘모(某)금서당’을 ‘모(某)금당(衿幢)’으로 쓴 사례가 빈번하여 아래 <표 1>에서 비금서당에 배당된 군관으로 언급된 모든 군관을 실제로는 ‘비금당’ 소속으로 쓰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련 부대의 존재는 비금서당과 다른 서당 부대를 비교할 때 독특하게 눈에 띄는 지점이다.

〈표 1〉 9서당 직제 표

군관명		부대명									관위
		녹금 서당 (綠衫 誓幢)	자금 서당 (紫衫 誓幢)	백금 서당 (白衫 誓幢)	비금 서당 (緋衫 誓幢)	황금 서당 (黃衫 誓幢)	흑금 서당 (黑衫 誓幢)	벽금 서당 (碧衫 誓幢)	적금 서당 (赤衫 誓幢)	청금 서당 (靑衫 誓幢)	
장군(將軍)		2	2	2	2	2	2	2	2	2	각간(角干)~9 (진골(眞骨))
대장척감 (大匠尺監)		4	4	4	4	4	4	4	4	4	사중아찬 (四重阿飡)(6~11)
대대감 (隊大監)	영마병 (領馬兵)	3	3	3	-	3	3	3	3	3	6~11
	영보병 (領步兵)	2	2	2	4	2	2	2	2	2	
제감(弟監)		4	4	4	4	4	4	4	4	4	10~13
감사지(監舍知)		1	1	1	1	1	1	1	1	1	12~13
소감 (少監)		13	13	13	13	13	13	13	13	13	12 이하
	영기병 (領騎兵)	6	6	6	3	6	6	6	6	6	
	영보병 (領步兵)	4	4	4	8	4	4	4	4	4	
화척 (火尺)		10	10	13	10	13	13	13	13	13	12 이하
	영기병 (領騎兵)	6	6	6	-	6	6	6	6	6	
	영보병 (領步兵)	4	4	4	8	4	4	4	4	4	
군사당주(軍師幢主)		1	1	1	1	1	1	1	1	1	7~11
대장척당주 (大匠尺幢主)		1	1	1	1	1	1	1	1	1	7~11
보기당주(步騎幢主)		4	4	4	-	4	4	4	4	4	8~11
착금기당주 (著衫騎幢主)		18	18	18	-	18	18	18	18	18	8~13
흑의장창말보당주 (黑衣長槍末步幢主)		24	20	-	-	20	20	20	20	20	9~13
군사감(軍師監)		2	2	2	2	2	2	2	2	2	11~13
대장대감(大匠大監)		1	1	1	1	1	1	1	1	1	10~13
보기감(步騎監)		4	4	4	-	4	4	4	4	4	11~13
착금감(著衫監)		18	18	18	-	18	18	18	18	18	11~ 당(幢)(14?)

〈표 2〉 '비금당(緋衿幢)' 직제 표

	비금당주(緋衿幢主)	비금감(緋衿監)	
		영당(領幢)	영마병(領馬兵)
사벌주(沙戈州)	3	40	8
십량주(敵良州)	3		
청주(靑州)	3		
한산주(漢山州)	2		
하서주(河西州)	6		
우수주(牛首州)	6		
웅천주(熊川州)	5		
완산주(完山州)	4		
무진주(武珍州)	8		
관위	8~13		

이상의 점들을 고려하면, 크게 두 가지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첫째는 왜 장창당이 효소왕 2년(693)에 비금서당으로 재편되었는가, 둘째는 왜 비금서당은 부대의 구성을 다른 서당과 달리 하였는가 하는 문제이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소의 견해가 제출된 바 있으나,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거의 접근한 사례가 없었다. 또한 첫 번째 문제가 두 번째 문제를 이해하는 데 다소의 단서를 제공해 줄 여지 또한 있을 것이라고도 여겨진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먼저 첫 번째 문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장창당은 신라당 전쟁기인 672년에 특히 기병과의 전투를 염두에 두고 창설된 부대로,²³⁾ “대방의 들[帶方之野]” 인근에서 벌어진 전투에서도 선봉 부대 중의 하나로서 당군과 교전하였다.²⁴⁾ 또한 그 명칭으로 보아 병종의 특수성에 기반을 둔 부대

23) 徐榮教, 앞의 논문, 1998, pp.49-50.

24) 『삼국사기』 권 43, 열전 3, 김유신(金庾信) 하 부록 원술(元述).

의 성격이 강했다고 여겨진다.²⁵⁾ 반면 비금서당은 ‘서당’으로서 국왕 직속의 부대로서의 의미가 강하며,²⁶⁾ 전혀 다른 성격의 부대가 재편성을 통해 다른 8개 부대와 명칭이 통일되어 ‘9서당’에 속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부대의 통일성을 꾀한 사례로 그 특수성을 강조하는 명칭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8서당’이 있음에도 693년이라는 시점에 또 다른 서당 부대가 필요하였던 이유는 어떠한 것이었을까.

이 해를 전후하여서는, 효소왕 원년(692) 8월 중시가 원선(元宣)으로 교체되고 난 뒤 1년 5개월 정도 뒤에 재위 3년(694) 정월 신궁 친사와 함께 상대등이 문영으로 교체되었다.²⁷⁾ 물론 중대에도 꼭 국왕의 즉위 직후에 상대등이 교체되지는 않았으나,²⁸⁾ 굳이 중시의 교체와 신궁 친사·상대등의 교체 사이 장창당이 비금서당으로 재편성된 것은 공교롭다. 특히 『삼국유사』 백률사조에 따르면, 마침 그 사이에 이른바 부레랑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B. 천수(天授) 3년 임진(壬辰, 692) 9월 7일 효소왕이 대현(大玄) 살찬(薩嚙)의 아들 부레랑을 국선(國仙)으로 삼았다. 문객(門客) [珠履] 1000명 가운데서도 안상(安常)과 특히 친하였다. 천수(天授) 4년 【장수(長壽) 2년이다.】 계사(癸巳, 693) 3월[暮春之月], (부레랑이) (낭)도(徒)를 이끌고 금란(金蘭)에서 유람하다가 북명(北溟)의 경계에 이르러서 적적(狄賊)들에게 붙잡혀 갔다. 문객들이 모두 어쩔 줄 모른 채 돌아왔으나 안상이 홀로 그를 추적하였으니 이때가 3월 11일이었다.

대왕이 이를 듣고 크게 놀라며 말하기를 “선군(先君)께서 신적

25) 末松保和, 앞의 책, 1954, p.354 등.

26) 末松保和, 앞의 책, 1954, p.349.

27) 『삼국사기』 권 8, 신라본기 8, 효소왕 원년(692) 8월조; 3년(694) 정월조.

28) 예를 들어 성덕왕(聖德王)의 즉위 이후 최초의 신규 상대등 임명은 재위 5년(706) 정월, 경덕왕(景德王)의 경우 4년(745) 정월의 일이다.

(神笛)을 얻어 짐(朕)에게 몸소 전하여서 지금 현금(玄琴)과 함께 내고(內庫)에 보관하여 두었는데, 어찌서 국선이 갑자기 도착들에게 사로잡혔는가?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 (중략) … 이 때 상서로운 구름이 천존고(天尊庫)를 덮었다. 왕이 또 떨면서 두려워하며 그곳을 살펴보게 하니 창고 안의 금(琴)·적(笛) 두 보물이 없어졌다. 이에 말하기를 “짐이 어찌서 불행히도 어제는 국선을 잃고, 또 (오늘) 금(琴)·적(笛)을 잃어버렸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창고지기[司庫吏] 김정고(金貞高) 등 5명을 가두었다.

4월 ① 국내에 (현상을) 모집하여[募於國] 말하기를,²⁹⁾ “금(琴)·적(笛)을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한 해 몫의 조(租)를 상으로 내리겠다.”고 하였다.

5월 15일 (부례)랑의 양친(兩親)이 백률사의 대비상(大悲像) 앞에 가서 여러 차례 제사를 치르고 빌었는데, 갑자기 향탁(香卓) 위에서 금(琴)·적(笛) 두 보물을 얻었고 (부례)랑과 (안)상 두 사람이 상(像) 뒤에 와 있었다. … (중략) … 이에 그 내력을 갖추어 말씀을 전하니 왕이 크게 놀라 (부례)랑을 맞아들이도록 하고 이와 함께 금(琴)·적(笛)을 안으로 들였다. … (중략) … 국내에서 대사(大赦)하고 사람들의 작(爵) 3급(級)을 올려주었으며, 백성들의 조(租)를 3년 동안 면제하여 주었다. (백률사의) 주지[主寺僧]를 봉성(奉聖)(사(寺))에 옮겨 살도록 하고 (부례)랑을 대각간(大角干) … (중략) … 으로, 아버지 대현 아찬(阿喚)을 태대각간(太角干)으로, 어머니 용보부인(龍寶夫人)을 사랑부(沙梁部) 경정궁주(鏡井宮主)로, 승려 안상을 대통(大統)으로 봉(封)하였다. 창고지기[司庫] 5명을 모두 사면하고 각각 5급의 작(爵)을 올려주었다.³⁰⁾

이에 따르면 692년 9월 7일 국선에 임명된 부례랑이 693년

29) ①는 기존 해석을 보이기 위해 姜仁求 외, 『譯註 三國遺事』 Ⅲ, 以會文化社, 2003, p.171을 따랐다.

30) 『삼국유사(三國遺事)』 권 3, 탑상(塔像) 제 4, 백률사(栢栗寺).

3월[暮春之月] 북명의 경계에서 적적들에게 잡혀가자 3월 11일부터 안상이 그들을 추적하였고, 5월 15일에 부레랑 등이 돌아와 이와 관련된 포상이 이루어졌다. 부레랑의 귀환이 백률사의 대비상이 보인 신험(神驗) 덕분인 듯 묘사되고 있지만, 그 사이 4월 국왕이 “모어국(募於國)”하는 조치가 있었다. 이는 표면적으로 천존고에 두었던 신적(만파식적)과 현금의 분실에 대한 조치로 나타나고 있지만, “짐이 어째서 불행히도 어제는 국선을 잃고, 또 (오늘) 금(琴)·적(笛)을 잃어버렸는가?”라고 하여 둘을 연결 지었듯 양자는 밀접히 연관되어 인식되었다. 이때 분실했다는 만파식적이 “군대를 물러가게 한다[兵退]”고 하여³¹⁾ 외적과 관련된 문제의 화두로 여겨졌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모어국(募於國)”이라는 조치 또한 신적·현금에 대한 조치만으로 이해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부레랑 사건은 단순히 국경 지대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왕경에서의 신적·현금의 분실과 표리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내정의 운영과 연결되어 그 의미가 부각되었으며, 이를 고려하면 신궁 친사와 상대등의 임명이 비교적 늦어진 데에도 이 사건의 영향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왜 이 문제가 그와 같이 부각되었을까. 이 점과 관련하여 상기하였듯 690년 3변수당이 설치된 점이 주목된다.³²⁾ 3변수당에 대한 기록은 상세하지 않지만 해당 연도에 한산주·우수주(牛首州)·하서주(河西州)에 설치되어 주(州)의 북쪽 변경에 대한 방어를 담당하였다고 여겨진다.³³⁾ 그런데 부레랑이 “(낭)도를 이끌고 금란에서 유람하다가 북명의 경계에 이르러서”

31) 『삼국유사』 권 2, 기이(紀異) 제 2, 만파식적(万波息笛).

32) 『삼국사기』 권 40, 잡지 9, 직관 3 무관 3변수당(三邊守幢).

33) 한준수, 『神文王代 地方制度와 軍制의 정비』, 『신라중대 울릉정치사 연구』, 서경문화사, 2012, pp.125-126.

실종되었다고 하였다. 금란은 현재의 강원도 통천으로 비정되며,³⁴⁾ 이는 하서주 북단(北端)의 휴양군(休壤郡)에 속하는 지역으로 하서변과 하서주 북단을 감싸는 우수주의 우수변 등 3변수당의 방비가 철저하지 못했던 것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³⁵⁾ 특히 하서변은 하서정(河西停)을 이화혜정(伊火兮停)으로 고쳐 후방 배치하고 난 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두어진 부대로 추정되므로,³⁶⁾ 이 부대가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면 곧 10정(停) 부대의 배치 구조, 나아가 선대 신문왕의 군제 개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게 할 법한 화두로 여겨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효소왕 정권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었을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눈에 띄는 것이 신적·현금을 분실하고 되찾을 때에 효소왕 정권이 취한 조치이다. B에 따르면 효소왕은 신적·현금을 분실했을 때 김정고 등을 구금하였다가, 부레랑이 돌아오고 신적·현금을 되찾은 이후 그들을 풀어주고 관작을 올리는 등 포상하였다고 한다. 이때 부레랑과 그의 부(父) 대현 아찬에게 주어졌다는 관작이 대각간·태대각간이라고 하여 김유신(金庾信)의 전례에 비견될 정도의 지위에 올렸다가, 김정고 등의 관작을 일거에 5급 올려주었다고 하는 내용에는 과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실제로 일정한 포상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과장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³⁷⁾ 그런

34) 李丙燾 譯註, 『譯註 三國遺事』, 한국학술정보, 2012, p.343(原書 乙酉文化社, 1977).

35) 이때의 문제를 일으킨 '적적(狄賊)'을 신라 내부의 효소왕에 대한 불만 세력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辛鐘遠, 앞의 글, 崔永禧先生 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刊行委員會 編, 앞의 책, 1987, pp.108-110). 그러나 부레랑이 사로잡혀 방목(放牧)을 하였다는 기록이 보이는 점에서 정주 생활을 하지 않고 또 신라에 의해 편호제민(編戶濟民)되지 않은 말갈 세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趙二玉, 「8世紀 前半 新羅의 北方進出과 對渤海關係」, 『統一新羅의 北方進出 研究』, 서경문화사, 2001, pp.94-95 참고). 따라서 이는 북방의 치안 문제와 관련되어 이해된다.

36) 한준수, 앞의 책, 2012, pp.125-126.

데 백률사 대비상과 신적·현금의 실험은 설화적인 것이고, 또 문제의 해결에 김정고 등이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이러한 포상에는 작위적인 측면이 있다. 오히려 변경에서 발생한 부레랑 사건을 중앙 정계의 화두로 불러일으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적·현금의 분실을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 중앙 정계에서 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아니었을까.

만일 그렇다면, 비금서당은 이상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재편성되었을 것이며, “모어국(募於國)”이라는 표현 또한 ㉠와 같이 “국내에 (현상을) 모집하였다”고 풀기보다, 수도[國]에서 이를 계기로 군사력을 초모(招募), (재)조직, 동원하는 사업을 진척시켰음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 한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모(募)’는 널리 구한다는 것[廣求也]이라고 하였는데,³⁷⁾ 『후한서(後漢書)』 광무제기(光武帝紀)에서 “초모맹사(招募猛士)”하였다고 한 데 대해 장희태자(章懷太子)가 『설문해자』를 인용해 주(註)를 달았듯³⁹⁾ 인원을 ‘초모(招募)’했다는 의미로 푸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와 관련하여 당시 상대등이었던 진복(眞福)이 주목된다. 진복은 681년 신문왕에 의해 상대등에 임명되었는데,⁴⁰⁾ 특히 그 직후 김흠돌(金欽突) 모반 사건에도 불구하고 상대등이 교체되지

37) 사료 B에서 692년 9월 7일 시점에서는 “대현(大玄) 살찬(薩嚙)”이 보이고, 693년 5월 15일 시점에서는 “대현 아찬(阿嚙)”이 보여 관위가 살찬(8)에서 아찬(6)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 점에서 대현이 아찬에서 태대각간으로 관위가 승급하였다고보다는 살찬에서 아찬으로 진급한 것으로, 관위 승급 기사에 과장은 있으나 오히려 기사에 그 원형을 복원할 수 있는 단서도 주어져 있다고 여겨진다.

38) 『설문해자(說文解字)』 권 13, 역(力)부, 모(募), “募, 廣求也.”

39) 『후한서(後漢書)』 권 1, 본기 1, 광무제(光武帝) 상, 경시(更始) 원년(23) 3월조 및 그에 대한 장희태자(章懷太子) 주(註), “初, 王莽 … 招募猛士, 【『說文』曰, ‘募, 廣求之也.’】 …”

40) 『삼국사기』 권 8, 신라본기 8, 신문왕 원년(681) 8월조.

않았으므로 신문왕과 가장 밀접한 인사로서 발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⁴¹⁾ 694년 정월 상대등의 교체 이전 진복이 사망·병면(病免)·인퇴(引退)했다는 등의 기사가 보이지 않으므로, 그가 694년 새롭게 문영이 상대등에 임명되기 이전까지 상대등의 자리에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⁴²⁾ 한편, 진복은 상대등으로 취임하기 이전에는 661년에 서당총관(誓幢總管)·665년 중시·668년 대당총관(大幢總管) 9인 중 1인의 자리를 역임하였음이 확인된다.⁴³⁾

그런데 이때의 상황과 관련하여 특히 그의 서당총관으로서의 경력이 주목된다. 661년 당시 편제된 부대들 가운데서도 서당총관은 1인만이 확인되므로, 그가 서당 부대의 확대 이전 서당과 관련된 전체 직무를 총괄하고 부대의 운용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었을 법하다. 이와 같이 당시 장창당의 비금서당으로의 재편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였을 인물의 경력을 고려하면 그 개편 과정에서 국왕의 직속 부대로서 확대 개편 이전부터 지니고 있었던 서당의 본원적 성격, 다시 말해 국왕의 친위적 역할이 한층 더 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이와 같이 보면, 상대등의 교체가 694년 정월에 이루어진 것은 효소왕 정권이 그러한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진복이 이를 완수하기를 기대하였기 때문으로, 서당과 관련하여 이해도가 높은 진복이 그 직무를 완수하기까지 유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에 힘입어 근왕적 입장에서 상대등 자리에 머물

41) 金壽泰, 「文武王의 王權強化와 김흠돌난」, 앞의 책, 1996, pp.14-15; 金羲滿, 앞의 논문, 1992, pp.76-78; 신정훈, 「신라 효소왕대의 정치적 변동」, 『한국 고대의 서상과 정치』, 해안, 2013, pp.197-198 등 참조.

42) 李基白, 「上大等考」,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p.103의 '新羅 中代 上大等 一覽表'; 이영호, 「귀족회의와 상대등」, 『신라 중대의 정치와 권력구조』, 지식산업사, 2014, p.189의 '신라시대 상대등 일람표' 참조.

43) 『삼국사기』 권 6, 신라본기 6, 문무왕 상, 원년(661) 7월 17일조; 5년(665) 2월조; 8년(668) 6월 21일조.

던 진복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분야에서 부례랑 사건을 통해 노출된 국가 조직의 약점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국왕의 통치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역할을 한 것이 장창당을 비금서당으로 재편하는 작업이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결국 장창당을 비금서당으로 재편하는 사업은 효소왕 대 초기의 정국에서 일화적인 데 불과한 사건이 아니라, 초기 정권을 구성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데에 하나의 중요한 단계로서 작용하였다고 여겨진다.

3. 비금서당·‘비금당(緋衿幢)’의 신라 군사 조직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그렇다면 이와 같이 재편된 비금서당에게는 어떠한 역할이 기대되었을까.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부대의 명칭과 관련된 그금색이다. 상기하였듯 『삼국사기』 직관지 무관조에서는 다른 서당들에 대해서는 2색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금색을 전하지만, 비금서당의 경우 금색에 대한 명시적 기록이 없으며 부대의 명칭으로부터 비색을 이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여타 8개 서당에서 사용한 금색 가운데 벽금서당의 벽색(碧色)을 제외한 모든 색은 2개 이상의 부대에서 쓰였다(〈표 3〉). 반면 이 비색은 다른 서당 부대의 금색으로 일절 쓰이지 않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9서당뿐만 아니라 신라 전체 부대 가운데서도 금색으로 비색이 쓰인 사례는 비금서당 및 그와 유관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군관(비금당주·비금감)에 한정된다. 이처럼 9서당 가운데 기록상 금색이 유일하게 명시되지 않은 비금서당의 금색에 대한 정보를 비색일 것이라고 추론해 메우더라

도, 이 비색 또한 부대의 상황을 살피게 하는 데 큰 단서를 주지 않는 것이다. 다만 다음의 기사를 그 의미를 추론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C. 법흥왕(法興王) 때의 제도에서는 태대각간으로부터 대아찬(大阿飡)에 이르기까지 자색 옷, 아찬부터 급찬(級飡)에 이르기까지 비색 옷과 아홀(牙笏), 대나마(大奈麻)·나마(奈麻)는 청색 옷, 대사(大舍)에서 선저지(先沮知)에 이르기까지는 황색 옷을 입었다.⁴⁴⁾

이는 법흥왕 7년(520) 제정되었던 공복제(公服制)의 내용이라고 하지만, 668년 김유신에게 수여되면서 신라 관위에 추가된 '태대각간'에 대한 기사가 부가된 데서 엿보이듯 중대 초까지의 상황을 반영한 기사이다.⁴⁵⁾ 이에 따르면 신라의 공복은 자(紫)·

〈표 3〉 서당 부대의 금색

부대 금색	녹금서당 (신라)	자금서당 (신라)	백금서당 (백제)	비금서당 (신라)	황금서당 (고구려)	흑금서당 (말갈)	벽금서당 (보덕국)	적금서당 (보덕국)	청금서당 (백제)
녹색 (綠色)	1	2							
자색 (紫色)	2	1							
백색 (白色)			1						2
청색 (靑色)			2						1
비색 (緋色)				(추정)					
황색 (黃色)					1		2		
적색 (赤色)					2	2		1	
흑색 (黑色)						1		2	
벽색 (碧色)							1		

44) 『삼국사기』 권 33, 잡지 2, 색복(色服).

45) 木村誠, 「六世紀新羅における骨品制の成立」, 『古代朝鮮の國家と社會』, 吉川弘文館, 2004, pp.188-192 참고.

비(緋)·청(靑)·황(黃)의 4색으로 서열화되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하였듯 9서당 가운데 신라인으로 구성된 3개 서당 가운데 비금서당 이외의 2개 서당, 자금서당의 금색은 자록(紫綠), 녹금서당의 금색은 녹자(綠紫)로 4색 서열의 최상위에 위치한 자색을 포함하였다. 물론 부대 간의 편제에 관료 개인 단위의 공복 서열을 그대로 적용하기 저어되지만, 막연하나마 굳이 이외에는 용례가 거의 보이지 않는 공복의 색을 비금서당의 금색으로 채용한 것을 고려하면 이 서열 관계를 참고하여 비금서당이 자금서당·녹금서당을 보조·보완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또한 부대의 금색을 살펴볼 때, 5주서(五州誓)가 자금서당·녹금서당에 쓰인 자색·녹색을 금색으로 사용하였음을 지적한 견해가 주목된다. 5주서는 신라의 간선 교통로인 5통(通)과도 밀접한 연관이 관련되어 있다고 추정되는데, 이로부터 자금서당·녹금서당과 5주서가 연계된 부대임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⁴⁶⁾ 이러한 두 부대의 대응 관계는 서당과 주서가 ‘서(誓)’라는 글자를 공유하는 점에서도 뒷받침된다.⁴⁷⁾

낭당이 677년 자금서당으로 개편된 점과 청주서(菁州誓)·완산주서(完山州誓)의 명칭은 685년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⁴⁸⁾ 마찬가지로 자색·녹색을 금색으로 쓰는 2절말당(二節末幢)과⁴⁹⁾ 관련지어지는 4인의 ‘절말당주(節末幢主)’를 포함한 만보당(萬步幢) 조직에 ‘9주만보당주(九州萬步幢主)’ 또한 포함되었으므로⁵⁰⁾ 7세기 후반, 구체적으로는 9주(州)가 갖추어진 685년 이후

46) 이상 徐榮一, 『新羅 五通考』, 백산학회 편, 『統一新羅의 對外關係와 思想研究』, 백산자료원, 1999, pp.106-107 참고.

47)李文基, 「7세기 후반 新羅의 軍制改革과 그 性格에 대한 一試論」, 『한국고대사연구』 16, 한국고대사학회, 1999, p.204.

48) 末松保和, 앞의 책, 1954, pp.368-370.

49) 『삼국사기』 권 40, 잡지 9, 직관 하 무관, 2절말당(二節末幢)조.

군제 개편 과정에서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⁵¹⁾ 등을 고려할 때 그 무렵 자색·녹색을 금색으로 쓰는 부대 사이의 관계가 확립되었을 것으로 헤아려볼 수 있다. 곧 이 때, 변경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할 시 자금서당과 녹금서당이 5통과 관련된 5주서·2절말당 등의 보조를 받아 파견되어 3변수당 등이 방어하는 지역에 합류한다는 구상에 입각해 부대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였던 것으로 헤아려진다.⁵²⁾ 그런데 이 '자색과 녹색을 금색으로 사용하는 부대' 사이의 구조에 693년 부례랑 사건으로 약점이 확인되자, 그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창당이 '자색 금색 부대를 뒷받침하는' 비금서당으로 재편되어 덧붙여졌다고 추측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이와 같은 신라인 서당 부대 간의 구조를 가정하면, 비금서당의 편제가 자금서당·녹금서당과는 다른 점에 대해서도 다르게 고찰해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곧 애초부터 비금서당이 자금서당·녹금서당에 대한 특수한 보조 역할을 하였으므로 통상의 서당 부대와 다른 구조를 택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비금서당과 유관한 듯한 비금당주·비금감을 함께 고려하여 살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헤아려진다.

상기하였듯, 비금서당의 군관으로는 영마병 대대감·영기병 화척이 누락되어 있고 영기병 소감이 다른 서당 부대(6인)의 반수인 3인에 불과하지만, 영보병 대대감·화척은 4인·8인으로 다른 서당 부대(2인·4인)의 배수이다. 반면 보기당주·보기감·착금기당주·착금감·흑의장창말보당주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다

50) 『삼국사기』 권 40, 잡지 9, 직관 하 무관, 만보당주(萬步幢主)조.

51) 李仁哲, 앞의 책, 1993, p.349; 李文基, 앞의 책, 1997, p.407 참조.

52) 이들 부대에서 금색으로 자색·녹색이 쓰인 의미 및 이들의 위계지휘 계통에 대해서는 홍성열, 「신라 통일기 5주서의 역할과 위상」, 『北岳史論』 15, 북악사학회, 2022, pp.86-92에서 깊이 논한 바를 참고할 수 있다.

른 한편 유사한 명칭의 비금당주·비금감이라는 군관이 별도로 보이는데 상기하였듯 둘의 유관 관계를 추리하는 데 크게 무리한 점은 없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부대의 특성에 대해 관련 기록이 없는 군관은 기록이 누락된 것이라고 보기도 하는 반면,⁵³⁾ 전신인 장창당과 같이 장창을 주로 쓰는 대기병 보병 병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특수한 구조를 띠었다고 보기도 하였다.⁵⁴⁾ 또한 비금당주·비금감은 장창당을 비금서당으로 개편하면서 이전의 장창당주를 비금당주로 고쳐 지방에 배치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었던 반면,⁵⁵⁾ 비금서당의 등장 시기와는 떨어진 경덕왕 대 9주정(九州停)의 조직이 갖추어질 무렵 비금당의 군호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⁵⁶⁾ 더 나아가 비금서당이 해체된 이후 비금당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두 부대 사이의 선후 관계를 설정하기도 하였다.⁵⁷⁾

이러한 견해들을 논하여 보면, 첫째로 군관 기록 누락설은 직관지의 다른 누락 사례에서 비롯한 추론이지만, 기록에 남아 있는 영보병 대대감·화척 등의 수에서 나타나는 차이에서 보듯 비금서당의 구조가 다른 서당과 분명히 달랐음에도 다른 서당의 구조에 대입해 비금서당의 구조를 일반화하려는 것이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⁵⁸⁾ 더욱이 서당 조직과 관련된 군관에 대한 기록에서 비금서당 이외에 기록이 빠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는 백금서당의 흑의장창말보당주에 대한 기록이 없는 1개 사례에 그

53)李文基, 「『三國史記』職官志 武官條의 內容과 性格」, 『新羅兵制史研究』, 一潮閣, 1997, pp.65-68; 盧重國, 앞의 논문, 1999, pp.190-191.

54)徐榮教, 앞의 논문, 1998, p.50.

55)井上秀雄, 『新羅兵制考』, 앞의 책, 1974, p.185.

56)李文基, 「景德王代 軍制改革의 實態와 新軍制의 運用」, 앞의 책, 1997, pp.369-371.

57)全德在, 앞의 논문, 1997, pp.51-52; 앞의 논문, 2020, p.37.

58)徐榮教, 앞의 논문, 1998, pp.48-50.

칠 뿐⁵⁹⁾ 복수의 군관에 대한 기록이 누락된 사례는 비금서당의 경우가 유일하다. 게다가 비금서당에 소속된 군관 전체의 기록이 누락된 것이 아니므로 어떠한 기준으로 기록이 남고 누락되었는지 일관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단순한 과실이나 자료 유실 등에 의한 것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둘째로 비금서당이 그 전신으로 기록된 장창당의 특성을 보존한 부대였기 때문에 기병 부대 없이 보병 위주로 편성된 부대라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그 명칭으로 보아 장창을 주 병기로 함이 유력한 흑의장창말보당주에⁶⁰⁾ 대한 기록까지 보이지 않는 점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만일 비금서당이 장창당과 마찬가지로 장창을 주 무기로 하는 특정 병종 부대의 성격이 강하였다면, 비금서당의 조직에서 흑의장창말보당주가 빠질 이유는 없다고 여겨진다.

이에 대해 현재 기록에 남은 비금서당의 조직을 장창당과 같은 것으로 보고, 흑의장창말보당주가 결여된 점은 동일한 성격의 장창 보병을 배치하는 것을 피하려 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⁶¹⁾ 그러나 다른 서당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비금서당의 조직에는 20인(녹금서당은 24인)의 흑의장창말보당주(급찬(9)~사지(舍知)(13))가 없고 영보병 대대감(아찬(6)~나마(11)) 2인·영보

59) 이 또한 누락으로 보지 않는 견해가 있다. 백금서당은 신라당 전쟁의 급속한 전개 속에서 저항할 가능성이 있는 백제인으로 구성된 부대였으므로 의도적으로 불완전하며 신라군에 의존적인 부대로 구성하였으며(徐榮教, 『新羅 白衿誓幢에 대하여』, 『慶州史學』 20, 경주사학회, 1999, pp.98-101), 장창당과 함께 운영되도록 계획되었다는 것이다(徐榮教, 앞의 논문, 1998, pp.63-64). 그렇지만 백금서당의 경우 비금서당과 같은 구조 전반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 점에서 이러한 설명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다소 주저되는 측면이 있으며, 장창 부대가 없었다는 백금서당과 이를 보완하였다는 장창 부대인 장창당의 조직에 흑의장창말보당주가 모두 없었다는 설명은 직관적으로 다소 난해하게 느껴진다.

60) 井上秀雄, 앞의 책, 1974, p.184; 李仁哲, 앞의 책, 1993, pp.333.

61) 서영교, 「공수와 장창보병」, 『新羅 軍事史 新研究』, 은서, 2016, p.110.

병 소감(대사(12) 이하) 4인·화척(대사(12) 이하) 4인이 더 많다. 만일 비금서당이 여전히 ‘장창 부대’로서의 특수성을 갖고 있었다면, 것처럼 특수한 병종의 성격을 지녔다는 부대에 전문성·특수성을 띤 명칭의 흑의장창말보당주를 두지 않고 일반적인 군관의 명칭을 따른 군관을 배수로 두었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해당 가설에 따라 흑의장창말보당주를 대체해야 할 군관의 수요가 적을 뿐만 아니라, 10인 중 2인의 대대감을 제외한 8인의 소감화척의 위계가 흑의장창말보당주보다 낮은 경향이 있어 다른 서당과 동격으로 재편된 부대의 격에 어울린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따라서 이들이 흑의장창말보당주를 대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상당(相當) 관위가 유사한 비금당주(사찬(沙漣)(8)~사지(13)) 쪽이 흑의장창말보당주의 니치(niche)에 위치한 군관으로 보기에 오히려 더 적합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비금서당이 장창을 주 무기로 하는 병종의 성격이 강하였다고 보는 견해는 비금서당과 유관한 것으로 보이는 비금당주의 배치 경향으로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비금당주는 총 40명인데, 각 주(州)마다 인원이 나누어 배치되어 있다.⁶²⁾ 그러면서도 그 수는 사벌주(沙伐州)·삼량주(歙良州)·청주에는 3인, 한산주에 2인, 우수주·하서주에 6인, 웅천주(熊川州)에 5인, 완산주에 4인, 무진주에 8명이 배치되어 주(州)마다 같

62) 단, 9서당 자체에 대해서도 지방의 축성과 밀접히 연관된 부대라고 보아 지방에 배치된 부대라고 보는 견해가 존재하였다(李明植, 「統一期の軍事組織」, 『新羅政治史研究』, 螢雪出版社, 1992, pp.293-295). 그렇지만 이 해석은 특히 진평왕 대와 670년대 신라당 전쟁 속에서 잦았던 축성을 일반화한 것인데, 특히 670년대 신라당 전쟁 당시에는 서당 부대들의 창설과 별개로 축성이 잦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때의 상황을 일반화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9서당을 중앙군으로 보는 견해(李基白, 「統一新羅와 渤海의 社會」, 李基白·李基東, 『韓國史講座 I: 古代篇』, 一潮閣, 1982, pp.340-342; 주보돈, 「남북국시대의 지배체제와 정치」, 강만길 외, 『한국사』 3, 한길사, 1994, pp.317-318 등)를 따른다.

지 않았다.

만일 비금서당이 장창당의 특성을 이어받았다면, 그와 관련한 비금당주 또한 최전방 지대에서 '말갈' 기병을 상대할 경우가 많았을⁶³⁾ 한산주에 많은 수가 배치되고 후방의 무진주에는 평균적 이거나 적은 수의 인원이 배치됨이 상식적이다. '장창 부대'의 기능 자체가 그럴 뿐만 아니라 672년 '대방의 들' 인근에 별도로 군영을 갖추다가 '말갈'을 동반한 당군과 맞서 다른 부대보다 먼저 군공을 세우는 등⁶⁴⁾ 정황상 선두에 배치되었던 군대로 보이므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최전방이었을 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방의 한산주에 배치된 수가 가장 적고 후방의 무진주에 배치된 수가 가장 많았다. 이는 비금당주가 속했을 '비금당'이 장창당이라는 전력(前歷)을 떠나 전혀 다른 목적에서 재편됐을 가능성을 짐작케 한다.

한편 비금당주·비금감이 구성했을 '비금당'의 성립 시기를 비금서당의 소멸 이후로 보는 견해는 비금당과 사자금당이 23군호에서 언급되지 않음에 주목한 것으로, 이 두 군호에 대한 기록이 후대 시점의 별개 계통의 기록이라는 점을 지적한 점⁶⁵⁾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그와 같이 비금당이 후대에 비금서당의 성격을 이어받은 부대라고 하면, 왜 9서당 가운데 비금서당만이 계승되어 9주정에 합류하였는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종래에는 대체로 비금당이 장창 부대로서 비

63) 선행 연구에서 장창당은 “나당전쟁의 주요 장소였던 황해도, 경기도 평야 지대에 대규모로 출현한 당, 말갈기병을 막아내기 위하여” 창설되었다고 본 점(徐榮教, 앞의 논문, 1998, p.49)을 참고할 수 있다. 전후의 상황에서도 『삼국유사』 백률사조에서 '방목' 하는 '적적'의 존재가 보이므로, 여전히 북방 전선에서 기병을 상대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았을 것이다.

64) 『삼국사기』 권 43, 열전 3, 김유신 하 부록 원술.

65)李文基, 「『三國史記』職官志 武官條의 內容과 性格」, 앞의 책, 1997, pp.52-53 및 「景德王代 軍制改革의 實態와 新軍制의 運用」, 앞의 책, 1997, pp.369-371.

금서당의 이름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았다.⁶⁶⁾ 그러나 비금당주의 배치가 장창 부대의 성격에 어울리지 않음은 상기한 바와 같다.

그보다는 후대에 독립 군호가 된 ‘비금당’은 본래 비금서당의 하부 조직을 기원으로 두었으며, 비금서당 자체가 특수한 성격을 지녔던 데서 비롯하였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일 듯하다. 상기하였듯 비금서당 자체가 여타의 서당 부대와는 구별되는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만들어졌으며, 부대의 구조 또한 달랐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특히 하부 보병 조직을 이끌어야 할 흑의장창말보당주가 없었던 것이, 비금당주·비금감에 의해 대체 또는 보완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비금당주의 전체 수 40인이 6개 서당의 흑의장창말보당주 20인의 2배수라는 점 또한, 비금서당에서는 기병 관련 군관이 대체로 축소된 대신 보병 관련 군관의 수가 정확히 2배로 팽창하여 있는 점과 맞아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23군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경덕왕 대에 9주정의 구성원으로 두어졌을 것이라고 추론되는 사자금당주(師子衿幢主)와 비교하여도 일정한 암시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사자금당주는 왕도(王都)와 9주(州)에 각각 3인씩, 총 30인이 두어졌다.⁶⁷⁾ 비금당과 비교하면, 비금당은 왕도에 배정된 군관이 없고 배치 장소에 따른 수 또한 각각 다르다는 특징을 띤다. 특히 사벌주·삼량주·청주를 제외한 6개 주(州)에 배치된 비금당주의 수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은 그 수가 일원적인 이념이나 일괄적 행정 조치에 의해 설정된 결과라기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현지의 상황을 반영하여 주(州)마다 각각 그 수를 조정해 간 결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비금당주가 왕도

66) 井上秀雄, 앞의 책, 1974, p.185; 李仁哲, 앞의 책, 1993, p.354; 全德在, 앞의 논문, 1997, p.51; 徐榮教, 앞의 논문, 1998, p.50 등.

67) 『삼국사기』 권 40, 잡지 9, 직관 하, 무관 사자금당주(師子衿幢主) 참고.

에 두어지지 않은 점은 새로운 부대인 사자금당과 달리 왕도에서 비금서당 조직이 비금당의 역할을 대신했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비금당이 별도의 군호로서 독립한 것은 경덕왕 대 무렵이라고 하여도, 사자금당과는 달리 그 이전 시기부터의 역사적 상황을 반영했을 공산이 크며, 그 기원은 장창당의 비금서당으로의 재편과 연계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는 비금서당의 소멸 이후에 9주에 비금당이 배치되면서 설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장창당이 비금서당으로 재편될 때부터 존재했고 다른 서당 부대와 구분되었던 특성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금당 군관에 대한 현전 기록 자체는 비금서당의 그것에 비해 후대의 것일지라도, 비금서당의 특성에 대한 단서를 그로부터 추론해 낼 여지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이 비금당 조직은 어떠한 조직이었을까. 우선 현재로서 확인되는 비금당 조직은 비금당주가 40인이고 영당(領幢) 비금감이 40인, 영마병 비금감이 8인이며, 비금당주는 상기한 것과 같이 9州에 불균등하게 나누어 배치되었다는 등 간략한 수준에 그친다. 일단 다른 서당의 보기당주(사찬(8)~나마(11))-보기감(나마(11)~사지(13)), 착금기당주(사찬(8)~사지(13))-착금감(나마(11)~당(幢)(14?))의 대응 관계를 생각할 때 비금감 또한 비금당주(사찬(8)~사지(13))보다는 위계가 낮았을 것이다. 한편 비금감 가운데 영당 비금감 40인의 배치는 비금당주와 일치했을 것으로 볼 수 있지만,⁶⁸⁾ 영마병 비금감 8인이 무진주의 영당 비금감 8인에 대응하여 모두 무진주에 배치되었을 것이라고 본 견해는⁶⁹⁾ 따르기 어렵다. 무진주에만 영마병 비금감이 집중 배치

68) 李仁哲, 앞의 책, 1993, p.353.

69) 李仁哲, 앞의 책, 1993, pp.353-354.

되어야 했던 합리적인 이유가 살피지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특히 부레랑 사건으로 약점을 노출된 국방의 강화를 위해서라면 더욱 많은 비금당주를 배치하여야 했을 북방의 한산주에는 불과 2인만이 배치되었고, 후방의 무진주에는 8인이 배치되었다. 특히 유독 무진주에만 많은 수의 비금당주가 배치된 것은, 상기하였듯 비금당주의 균질하지 않은 배치가 주(州) 현지의 상황을 반영하였다고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무진주의 특성에 의해서였을 것이다.

막연한 추론이지만, 무진주 지역은 한반도 서남해안 지역으로 고대부터 수로 교통이 발달하였고 도서 지역이 많은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들 도서 지역에 대해서는 백제 때 “국남해중(國南海中)”에 15개 성읍(城邑)이 두어졌다고 한다.⁷⁰⁾ 이들 성읍이 모두 신라의 군현으로 계승되지는 않았다고 여겨지는데, 백제가 멸망할 때 5방(方) 37군(郡) 200성(城)을 두었다고 한 것과 달리 신라에서는 그에 대응하는 지역을 3주(州) 2소경(小京) 37군(郡) 104현(縣)으로 편제하여 하부 행정 구역을 축소 개편했기 때문이다. 그 밖의 성(城)은 향(鄕)·부곡(部曲) 등으로 재편됐을 것으로 여겨진다.⁷¹⁾ 그렇다면 이로 인해 행정 공백이 발생한 지역 또한 적지 않았을 것이며,⁷²⁾ 무진주 지역에서 특히 이 문제가 두드러졌을 법하다. 이에 대해 현으로는 승격되지 못했으나 중요한 거점으로 판단된 지역을 선별하여 비금당을 둠으로써 사회

70) 『한원(翰苑)』 백제, “又國南海中, 有大島十五所, 皆置城邑, 有人居之.”

71) 이상 盧重國, 「統一期 新羅의 百濟故地支配 -《三國史記》職官志·祭祀志·地理志의 百濟關係記事分析을 中心으로」, 『韓國古代史研究』 1, 한국고대사연구회, 1988, pp.142-145 참고.

72) 『한원』 백제조와 『삼국사기』 지리지를 대조하여 백제 멸망 이전 서남해 도서 지역에 7곳 정도의 군현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본 견해가 제출된 바 있다(문안식, 「고대 강진과 그 주변지역 토착세력의 활동과 추이」, 『역사학연구』 52, 2013, pp.152-153).

불안을 해소하려 하였던 것은 아닐까. 무진주에 유달리 많은 비금당주가 배치된 것, 나아가 서남해안의 도서 지역과는 거리가 있으나 마찬가지로 백제의 옛 땅인 웅천주(비금당주 5인)·완산주(4인)에도 사벌주·삼량주·청주(3인)보다 많은 비금당주가 배치된 이유는 그 점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그와 같이 보면, 비금당주가 배치되었을 장소는, 우수주·하서주에 비금당주 6인씩을 둔 점에서 추론할 수 있듯 직접적으로 부레랑 사건으로 약점이 노출된 군사적 경계의 강화를 위해 두어진 곳 이외에도, 행정적인 공백으로 인한 치안 문제 등 사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두어진 곳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곳에 비금당을 뒀으로써 경비·치안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비금당주가 배치된 수를 보면, 실제 부대의 재편 과정에서는 오히려 후자의 의미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을 것으로도 추론할 수 있다. 이들은 평시에는 특수한 지역의 치안·방위 문제를 담당하다가, 유사 시 중앙의 비금서당과 연락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5주서·자금서당·녹금서당 등과도 연계하여 대규모 파병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을 것이다.

반면 한산주의 경우, 이러한 치안 유지의 목적을 위한 부대를 새로 두기보다는 이미 두어진 군사 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용이할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다. 한산주에는 이미 9州 가운데 유일하게 남천정(南川停)과 골내근정(骨乃斤停)의 2개 정(停)이 두어졌으며, 5주서⁷³⁾·3변수당·2계당(二鬮幢: 한산주계당(漢山州鬮幢)·우수주계당(牛首州鬮幢)·2궁(二弓: 한산주궁척(漢山州弓尺)·하서주궁척(河西州弓尺)) 등 비교적 특수한 군사 조직이 한산주

73) 5주서의 경우 부대의 배치뿐만 아니라 군관의 수도도 많은 수의 비금당이 배치된 우수주서·하서주서의 경우에는 여타 3개 주(州)의 주서에 비해 소수의 군관만이 배정되었던 반면, 적은 수의 비금당이 배치된 한산주서의 경우 비교적 정연한 조직을 갖추고 있었음이 공교롭다.

에는 모두 두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군사 조직의 밀도가 높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군사적으로 생길 수 있던 취약점이 자체적인 조직으로 상당 부분 보완되어 있었던 점에서 한산주에 가장 적은 수의 비금당이 두어진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재로서 8인이 두어졌다고 하는 영마병 비금감의 구성에 대해서는 막연한 추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 8이라는 수는 9주(州)나 10정(停), 5주서나 5소경·5통(通) 등 여타의 지방 조직에서 정확히 대응한다고 할 사례를 찾기 힘들다. 한편 비금서당 조직 내에서 기병 관련 군관이 대부분 빠져 있음에도 영기병 소감이 3인 배치되어 있는데,⁷⁴⁾ 이 수 또한 8과 짝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에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 8이라는 수효는 장군(將軍) 2인-대관대감(大官大監) 4인의 배수로서 정합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 점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8인의 비금감에 대해 ‘영마병(領馬兵)’하였다고 한 점이다. 이 ‘마병(馬兵)’에 대해 ‘기병’에 비해 상위의 병종으로 말 타기와 활쏘기 등에 뛰

(표 4) 5주서 직제 일람표

주서(州署)	군관 대대감 (隊大監) (영기병 (領騎兵))	소감(少監) (영기병)	소감 (영보병 (領步兵))	화척(火尺) (영기병 (領騎兵))	착금기당주 (著衿騎幢主)
청주서(靑州署)	1	3	9	2	6
완산주서(完山州署)	1	3	9	2	6
한산주서(漢山州署)	1	3	9	2	6
우수주서(牛首州署)	-	-	-	-	3
하서주서(河西州署)	-	-	-	-	4

74) 이 점은 이전까지 ‘기형성’을 보이는 것으로서 비금서당의 군관 기록 누락설의 근거로 이용되었다(李文基, 『三國史記』職官志 武官條의 內容과 性格, 앞의 책, 1997, p.66). 그러나 특히 이 3인은 애초에 ‘누락’과는 다른 사례이므로 누락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어났고⁷⁵⁾ 외관 측면에서도 금색 등에서 미루어 볼 때 조직적으로 색채를 갖춘 복장을 착용함으로써 시각적으로 군주의 권위를 드러내는 기능까지 하였을 부대로 본 선행 연구를⁷⁶⁾ 참고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마병'이라는 표기는 직관지 내에서 단 두 군데, 영마병 대대감과 영마병 비금감의 사례로만 보인다. 곧 '마병'의 특수 기능을 마찬가지로 지닌 정선(精選)된 부대의 군관으로서 영마병 비금감이 역할을 하였을 법하다.

여기에 더해 앞서 비금당주가 각 주(州)마다 배치되었을 것임을 고려하면, 중앙 군사 조직으로서의 비금서당과 지방 군사 조직으로서의 비금당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두 부대 사이에 연락 및 소통을 담당할 부대가 존재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마병'과 구분되는 '영당' 비금감의 수효가 비금당주와 일치하므로 이들 조직이 보병 조직이라고 본다면, 이들이 서로의 연락 및 소통을 담당하기에는 보병으로서 기동력의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한 것이 영마병 비금감으로, '당주'가 거느리는 하위 부대 없이 소수의 정예 병력만으로 기동성을 이용해 상기한 역할들을 담당했다고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 점에서 비금서당의 '영기병' 대대감 3인과 비금당의 '영마병' 비금감 8인은 일정한 대조를 이룬다. 이들은 그 수효에 특별히 대응 관계가 없으므로 계통을 달리 하였다고 헤아려지며, 구조적으로도 '영마병' 대대감 아래 '영기병' 소감이 존재하는 다른 서당과 달리 '영기병' 소감과 '영마병' 비금감이 병렬되어 차이가 있다. 상기한 대로라면, '영마병' 비금감은 중앙으로부터 주(州)에 왕래하며 국왕의 직속 부대로서의 권위를 보이는 부대로서

75) 최상기, 「신라 9誓幢 구성원의 성격과 역할 - 소속 軍官의 출신과 일부 兵種을 중심으로-」, 『中央史論』 56,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2022, pp.77-83.

76) 최상기, 앞의 논문, 2022, pp.92-95.

‘기병’과 차별화되는 성격이 중요했을 것이다. 반면 ‘영기병’ 소감은 여타의 8개 서당이 공존하는 중앙에서는 상대적 지위가 두드러지지 않는 군관으로서, 여타 서당 부대에도 보이는 기병 관련 조직 가운데 하부 구조의 일부분인 ‘영기병’ 소감만이, 그것도 다른 부대에 비해 절반으로 축소되어 ‘영마병’ 비금감과 관련된 최소한의 직무를 처리하기 위해 잔존했다고 추측할 수 있을 듯하다.

다만 8이라는 수가 ‘9주(州)’·‘5소경’과 같은 지방 조직과도 대응되지 않는 점에서, 이들이 각 주(州)나 소경과 같은 현지에 파견되어 있었다기보다는 왕경과 가까운 관문 지역에서 2인의 장군·4인의 대관대감과 연락이 닿는 지역에서 주둔하다가 필요에 따라 지방으로 파견되지 않았을까 한다. 장군(2인)-대관대감(4인)의 배수인 ‘영마병’ 비금감(8인)의 수는 그로부터 비롯하였을 것이다. 나아가 이와 관련해서는, 후대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822년 김헌창(金憲昌)의 반란을 토벌하기 위해 편성된 8인의 장군(將軍)의 행보를 참고할 수 있다. 이 때 8인의 장군 가운데 1인은 반란군에 대한 선발대, 2인은 후발대, 3인은 3군(三軍)을 이끌고 원정에 나서는 존재였던 반면, 2인은 문화관문(蚊火關門)을 지키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⁷⁷⁾ 이를 참고해 생각하면, 왕경에서 현재의 외동~울산·건천~영천·내남~양산·안강~포항 및 동해안 방향의 사방으로 나아가는 주요 거점 인근에 2인씩의 ‘영마병’ 비금감이 배치되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렇다면, 왜 굳이 중앙의 비금서당 조직과 각 주(州)의 비금당 조직이 분리되어 운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들의 편제를 연결하려 하였을까 하는 문제가 남는다.⁷⁸⁾ 근본적으로

77) 『삼국사기』 권 10, 신라본기 10, 憲德王 14년(822) 3월 18일조, “遂差貞將八人, 守王都八方, 然後出師. 一吉滄張雄先發, 迺滄衛恭·波珍滄悌凌繼之, 伊滄均貞·迺滄雄元·大阿滄祐徵等, 掌三軍徂征. 角干忠恭·迺滄允膺守蚊火關門.”

로 비금서당과 비금당은 왕경과 주(州)로 배치된 지역이 나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州)에서도 부대가 분산되어 있었으므로, 비금서당이 통일적인 군단으로서 운용되기 또한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굳이 두 부대를 연결 지으려 한 까닭은 무엇이였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서당의 본원적 의미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겠다. 곧 서당은 그 명칭으로 보아 여타의 부대보다도 국왕에 직속한 부대로서의 의미가 강하였다. 그렇다면 비금서당과 연계되어 주(州)에 배치된 비금당의 근거에도 국왕에 직속한 부대라는 관념이 자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곧 형식상 국왕의 직속 군사 조직을 왕경뿐만 아니라 지방에까지 확대 설치함으로써, 국왕의 시선이 각 주(州)의 벽지에까지 미쳐 부레랑 사건과 같은 사회의 불안을 예방·해소하고자 애쓰고 있었음을 천명한다는 의미를 지녔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다만 그러한 제도적 연결은 점차 현실적인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었고, 결국 비금당이 각 주(州)에 소재하며 운용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구조가 간소화됨과 함께 8세기 중반 이후 이들이 독립된 군호로 기록된 것이 아닐까 한다.

78) 井上秀雄은 장창당이 해체·재편되어 비금서당이 되었다고 보면서도, 비금당은 장창당의 해체 결과 지방에 분산 배치되었으며 그로 인해 비금서당의 구조 또한 기형적인 형태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비금서당이 '9서당'이라는 관념적인 수를 맞추기 위해 만들어진 기념적인 부대일 뿐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井上秀雄, 앞의 책, 1974, p.185). 그러나 신문왕 대에 대체적인 군사 제도의 정비를 마친 상황에서 단순한 관념적인 수를 맞추기 목적으로 장창당을 비금서당으로 재편하였을지는 의문이며, 어떤 의미에서든 실질적인 기능을 하였던 부대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4. 맺음말

이상과 같은 설명이 성립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받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첫째로 효소왕 대 초기 정국과 관련하여서, 부레랑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단순히 왕권에 대한 위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는 사건으로 재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본문에서 논한 대로라면, 효소왕 정권 측에서 부레랑 사건을 신적·현금의 분실과 연결 지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창당의 비금서당으로의 재편이라는 조치를 이끌어낸 것으로까지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한다.

다음으로, 비금당에 대해서도 비금서당의 전신인 장창당의 성격을 계승하였을 뿐 실제로 비금서당과는 무관한 부대가 아니라, 비금서당과 직결되는 존재로서 새롭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특히 신문왕 대 9주(州) 제도로 대표되는 지방 제도와 군제의 정비를 통해 일견 ‘완성’된 듯이 여겨지는 제도의 결점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었음을 알려주는 단서로서 비금서당과 비금당의 역사적 위치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694년 신궁 친사와 새로운 상대등의 임명 이후, 그 해 겨울 송악(松岳)·우잠(牛岑)에 대한 축성이 이루어졌다.⁷⁹⁾ 이는 690년 3변수당의 설치로 일단 한계 지어진 영역 내의 안보상의 약점을 해소한⁸⁰⁾ 자신감에 힘입어 북방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 행

79) 『삼국사기』 권 8, 신라본기 8, 효소왕 3년(694) 겨울조, “築松岳·牛岑二城.”

80) 연도는 알 수 없으나 효소왕 대에 하서주 북단을 감싸는 우수주 북쪽의 비열훈군

정력을 투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장창당의 비금서당으로의 재편은 당시 신라 사회의 불안을 해소하며 그 내적 지배력을 강화하고 이를 외부로 확장해 나가는 데 의미 있는 계기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比列忽郡)에 성을 쌓은 사실을 『삼국사기』 권 35, 잡지 4, 지리 2, 신라 삭정군(朔庭郡)조 참고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원전 자료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후한서(後漢書)』 『설문해자(說文解字)』 『한원(翰苑)』

2. 저서

- 강만길 외, 『한국사』 3, 한길사, 1994.
姜仁求 외, 『譯註 三國遺事』 Ⅲ, 以會文化社, 2003.
國史編纂委員會 編, 『한국사 3: 고대 - 민족의 통일』, 國史編纂委員會, 1978.
金壽泰, 『新羅中代政治史研究』, 一潮閣, 1996.
박명호, 『7세기 신라 정치사의 이해』, 경인문화사, 2016.
박해현, 『신라 중대 정치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3.
백산학회 편, 『統一新羅의 對外關係와 思想研究』, 백산자료원, 1999.
서영교, 『新羅 軍事史 新研究』, 은서, 2016.
신정훈, 『한국 고대의 서상과 정치』, 혜안, 2013.
李基白,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李基白·李基東, 『韓國史講座 I: 古代篇』, 一潮閣, 1982.
李明植, 『新羅政治史研究』, 螢雪出版社, 1992.
李文基, 『新羅兵制史研究』, 一潮閣, 1997.
이영호, 『신라 중대의 정치와 권력구조』, 지식산업사, 2014.
李仁哲, 『新羅政治制度史研究』, 一潮閣, 1993.
趙二玉, 『統一新羅의 北方進出 研究』, 서경문화사, 2001.
崔永禧先生 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刊行委員會 編, 『崔永禧先生 華甲
紀念 韓國史學論叢』, 探究堂, 1987.
한준수, 『신라중대 올령정치사 연구』, 서경문화사, 2012.
末松保和, 『新羅史의 諸問題』, 東洋文庫, 1954.

木村誠, 『古代朝鮮の國家と社會』, 吉川弘文館, 2004.

井上秀雄, 『新羅史基礎研究』, 東出版, 1974.

村上四男, 『朝鮮古代史研究』, 開明書院, 1978.

3. 논문

金義滿, 「新羅 神文王代の 政治狀況과 兵制」, 『新羅文化』 9,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92.

UCI: I410-ECN-0102-2009-910-009229371

盧重國, 「統一期 新羅의 百濟故地支配 -《三國史記》 職官志·祭祀志·地理志의 百濟關係記事分析을 中心으로」, 『韓國古代史研究』 1, 한국고대사학회, 1988.

盧重國, 「신라 통일기 九誓幢의 성립과 그 성격」, 『韓國史論』 41·42 합집,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9.

UCI: I410-ECN-0102-2009-910-003772546

문안식, 「고대 강진과 그 주변지역 토착세력의 활동과 추이」, 『역사학 연구』 52, 호남사학회, 2013.

UCI: I410-ECN-0102-2014-900-001544374

徐榮教, 「新羅 長槍幢에 대한 新考察」, 『慶州史學』 17, 경주사학회, 1998.

徐榮教, 「新羅 白衿誓幢에 대하여」, 『慶州史學』 20, 경주사학회, 1999.

辛兌鉉, 「新羅 職官 및 軍制의 研究」, 『慶熙大學校 論文集』 2, 경희대학교, 1959.

李文基, 「7세기 후반 新羅의 軍制改革과 그 性格에 대한 一試論」, 『한국고대사연구』 16, 한국고대사학회, 1999.

全德在, 「新羅 下代 鎭의 設置와 性格」, 『軍史』 3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97.

全德在, 「『삼국사기』의 기록을 통해 본 신라 왕경의 實相 - 문무왕대 이후 신라본기와 잡지, 열전에 전하는 기록을 중심으로 -」, 『大丘史學』 132, 대구사학회, 2020.

DOI: 10.17751/DHR.132.1

정선여, 「新羅 神文王代 報德國民의 반란」, 『역사와 담론』 66, 호서사학회, 2013.

UCI : G704-001545.2013..66.002

최상기, 「신라 9誓幢 구성원의 성격과 역할 - 소속 軍官의 출신과 일부 兵種을 중심으로-」, 『中央史論』 56,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2022.

DOI : 10.46823/cahs.2022.56.67

홍성열, 「신라 통일기 5주서의 역할과 위상」, 『北岳史論』 15, 북악사학회, 2022.

DOI : 10.37288/bukak.2022.15.3.67

<Abstract>

A Brief Study on the Reorganization from Jangchangdang(長槍幢) to Bigeumseodang(緋衿誓幢), and the Structure of 'Bigeumdang(緋衿幢)'

Yun, Tae-Yang*

Bigeumseodang(緋衿誓幢) was one of the Nine Seodang(誓幢)s of Silla and reorganized in 693 from Jangchangdang(長槍幢). Also, there are records of Bigeumdangju(緋衿幢主) and Bigeungam(緋衿監) in *Samguksagi*(三國史記).

I consider that the reorganization of Bigeumseodang was an event that was closely related to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e early reign of King Hyoso(孝昭王), especially as a reaction to the Buryerang(夫禮郎) disappearance case from March to May 693. The reorganization was likely triggered by “Conscription around the capital region(募於國).” Jinbok(眞福), who had served as Chong-gwan of Seodang(誓幢總管), appointed in 661 and served as Sangdaedeung(上大等) from the era of King Shinmun(神文王) to 694, would have led this action being supported by King Hyoso.

I also assumed that Bigeumseodang had been reorganized to assist and supplement units like Jageumseodang(紫衿誓幢) and Nokgeumseodang(綠衿誓幢) referring to the color of the collars of Bigeumseodang as part of the four-rank color system of the official attire(公服). Meanwhile, considering the deployment of Bigeumdangju,

* Ph.D. Candidate, Sogang University.

I supposed they had performed roles not only to deal with the military weakness but also to keep public order and security in areas where the administrative vacuum had appeared. On the other hand, consulting the former research, I speculated that Bigeumgam ‘leading Mabyeongs(領馬兵)’ would have acted as a link between Bigeumseodang in the capital and Bigemdang in Provinces, delivering royal commands and showing the dignity of the kingship.

Keywords : Bigeumseodang(緋衿誓幢, Vowed Military Force of the Scarlet Collars), Bigeumdang(緋衿幢, Military Forces of the Scarlet Collars), Jangchangdang(長槍幢, Long Spearmen Military Force), King Hyoso of Silla(孝昭王), Buryerang(夫禮郎) Disappearance Case

(원고투고일 : 2025. 1. 8. 심사완료일 : 2025. 2. 20. 게재확정일 : 2025. 3. 4.)